
국가인권위 농성을 일단 정리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28일 오후 6:05

안녕하세요, 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 배여진이라고 합니다.

어제 시작했던 국가인권위 농성은 오늘 오전 11시 공권력을 투입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단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 사퇴 촉구 농성 보고

▷ 10/27(월),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관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은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 사퇴 촉구 농성을 시작하기로 하였음.

▷ 약 11시경 미리 비장애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참가하며 배움터 확보에 나섰다.

▷ 원래는 2시에 있는 모 단체에서 하는 토론회 장소 변경을 요청하고 2시부터 본격적인 농성에 돌입하려 했지만, 토론회 장소 변경이 되지 않아 농성 시작은 5시로 변경하였음.

▷ 4시 반경, 토론회가 끝나고 비장애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 배움터 11층에서 농성을 시작함. 같은 시간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촛불집회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회의가 진행중이었음.

▷ 본래 이번 농성은 장애활동가들도 함께 하는 농성이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 측에서 전원위원회 무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시설보호요청을 하여 오전 8시경부터 경찰이 건물 내부와 외부를 모두 막고, 엘리베이터도 6층까지 운행하게 하였음. 이에 장애대오가 11층으로 올라오는 게 불가능해졌음. 참고로 경찰은 계단 복도와 1층 로비 등을 다 막았고, 여경들도 계속해서 배치되어 있었음.

▷ 11층으로 올라오지 못한 장애대오는 장장 6시간에 걸쳐 1층 로비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고,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함.

▷ 어떻게든 11층으로 올라가는 방법들을 강구해보았으나 11층으로 올라가려는 대오가 1층에 있는 한 경찰병력의 철수는 불가능해 보였음. 현장에서는 농성에 대한 고민이 오가기 시작했고, 결국 일단 1박 농성을 진행하고, 이튿날(28일, 화) 국가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 공권력 투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차 농성투쟁을 마무리 짓기로 하였음.

▷ 11시경부터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여 침낭과 장판 등을 세 명의 남성 활동가가 11층까지 걸어 올라와 전달하고, 1층과 11층 둘 다 27일 오전까지 농성을 진행함.

※ 이번 주 목요일(30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 날임. 이에 국회에서 김양원 비상임위원과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질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 이정희 의원실과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했던 민주당 서갑원 의원실에 제안을 하기로 하였음. 또 이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김양원 비상임위원에 대한 이슈화가 필요하여 그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중임.

※ 일단 1차 농성은 접은 상태이지만, 국감까지 김양원과 공권력투입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어제 김양원에 대한 많은 취재가 있었으나, 촛불집회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있어 거의 보도되지 않았음. 국감이 끝난 뒤 김양원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날마다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 전원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각 위원들의 발언을 통한 인권의식 수준 등을 알아내어 인권위원의 자질과 인선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작업도 필요하리라 생각됨. 실제로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인권단체들에서 반대했지만, 결국 비상임위원이 된 모 위원을 포함해 몇몇 위원은 “경찰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위협한 발언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참고로 김양원은 전원위원회 동안 말 한마디 안 하였다고 함.

※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설보호요청을 하며 공권력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과를 요구하기로 하였음. 새사회연대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회람하기로 함.